



▲ (주)에스씨에프 공장 전경

“양축가 양어가의 영원한 반려자”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회사를 사랑하는 사원, 사원을 아껴주는 회사」를 사훈으로한 (주)에스씨에프가 한국축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사료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72년의 일이다.

(주)에스씨에프는 1972년 창립 이래 인간존중의 정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지난 30여년을 양축농가와 양어가와 함께 성실하게 달려왔으

며, 2004년 원주공장 가동에 이어 2007년 충남 당진에 신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고 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축·양어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에스씨에프의 영업적, 기술적 Know-how는 무엇일까?

우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문제를 관리하는 예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김정인 대표이사

여기에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직접관리함으로써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특수가축분야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판매처의 지속적인 연결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뛰어넘어...

에스씨에프는 품질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선 HACCP인증에 적합한 공장 설계로 완전한 라인 분리를 설계하였다. 즉, 항생제 라인과 무항생제 라인과와의 분리 및 양어사료 라인과 양견사료 라인 분리로 고품질의 안전한 사료를 제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고전 원료관리 및 원료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료분석에 있어서도 일반성분·곰팡이독소·살모넬라·수질 검사 등 사료관리법 및 HACCP에 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수산 양식 시험연구소의 자체 사양시험을 통하여 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에스씨에프가 내세우는 품질관리 전략이다.

이렇듯 소비자의 요구를 뛰어넘는 품질 및 서비스 제공을 원칙에 따라 제조한 모든 사료는 양축가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는 에스씨에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때문이며 품목 및 제품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산란계 사료 : 높은 소화 흡수율로 산란율 극대화, 최적 영양소 균형에 따른 난각질 개선, 산란 피크 지속 및 높은 특란율



▲ 싸이로 시설

◎ **양돈 사료** : 고에너지와 고단백질의 최신 기술 설계로 고속성장, 인분해 효소를 사용한 환경 친화적인 사료, 유해가스 농도를 낮추어 호흡기 질병 예방, 면역기능 강화, 최적수준의 아미노산, 에너지수준 유지

◎ **양어 사료** : 육질 및 향미를 고려한 적정원료 첨가, 사육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사료형태, 영양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익스트루전 처리, 어종 특성에 적합한 각종 영양소 함유

◎ **애견 사료** : 계육분과 계유를 사용하여 기호성이 탁월함,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단백질과 에너지의 최적설계, 발효 섬유소 사용에 따른 장환경 개선으로 분변이 작고 단단함, 윤기있고 건강한 피모, 급여시기에 맞춘 다양한 사료 크기

당진공장 신축 - 제2의 도약기

당진 신공장은 허가생산량(일산) 360톤 규모로 일반 양축사료는 물론 어류용 배합사료, 기타 특수사료 등 고품질 다품종의 배합사료를 제조·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저희 에스씨에프 당진 신공장은 국내 최초로 항생제라인과 무항생제라인을 설계단계부터 분리시켜 고객에게 더욱더 안전한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어 및 양견(EP)사료 등 특수사료 제조부문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최고수준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라고 김정인 사장은 힘차게 포부를 밝혔다.

이에 그동안 궁금했던 당진공장 신축에 대하여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기자의 질문에 김정인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선뜻 대답한다.

“안그래도 요즘같이 축산 및 사료업체가 어려운 시점에 공장신축한다고 하니 주위에서 말들이 많던디다. 그러나 당진으로의 신축을 통해 에스씨에프가 새롭게 느끼는 자부심 및 앞으로의 기대감은 누구도 짐작치 못할 것입니다.(웃음)”

김정인 사장의 너털 웃음속에 짓게 깔리는 는 곳함, 그러나 그는 이내 정색을 하며 다음 말을 잇는다.

“신축을 통한 기업의 성장도 좋지만 그것은 반드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양질의 사료 생산·공급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양축농가들의 끊이지 않는 성원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양축농가는 대부분이 긴 기간을 통해 유대를 맺어온 단골거래선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찾는거죠.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폭넓은 서비스로 보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들이 믿고 찾는 것은 에스씨에프의 장인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김정인 사장은 대답한다.



▲ 중앙제어실

당진공장 신축과 더불어 2007.1월부터 국내 최대의 제분회사인 운산그룹(한국동아제분 등)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게 된 에스씨에프는 앞으로 원료 및 제품개발, 판매 등에 그룹계열사와 협력하여 업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에스씨에프는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 허겁지겁 서두르는 기업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오늘에 만족, 안주하는 기업도 아니다. 내실있고 야무진 한걸음 한걸음이 에스씨에프의 저력 -.

지금까지 구축한 탄탄한 기업 이미지와 첨단 설비 및 신기술로써 국내 축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 할 에스씨에프가 기대된다.